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More Love to Thee, O Christ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Hear Thou the prayer I make On bended knee.
This is my earnest plea: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2. Once earthly joy I craved, Sought peace and rest;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This all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3. Then shall my latest breath Whisper Thy praise;
This be the parting cry My heart shall raise.
This still its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Amen.

본문 마태복음 5:6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Matthew 5:6

6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참된 복의 선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 온유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안개와 같은 세상 뒤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갈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리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음에 직면한 상태의 절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며 의로우신 주님과 그분의 뜻을 죽을힘을 다해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야곱처럼 엉뚱한 세상의 조건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행복해지기 위해 장자권을 빼앗고, 14년간 일하여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과의 원수 관계,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두려움과 허망함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홀로 압박강가에 남아 절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밤새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의 한도빠가 부러져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 조건을 내려놓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며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씨름하던 '야곱(숙이는 자)'을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출근하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신자는 아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된 성도입니다

The Beatitudes are declarations of true blessing given to believers redeemed by God's grace. Under Roman oppression, the Israelites likely struggled with calls for poverty of spirit, mourning, and meekness. Yet, Jesus proclaimed these truths because this fleeting world is not all there is; an eternal kingdom awaits us. Therefore, believers must live with desires distinct from the world.

To "hunger and thirst" signifies a life-or-death longing. A true believer constantly asks, "What would Jesus do?" hungering for Christ and His righteous will in every circumstance. However, like Jacob, we often pursue the wrong things. Jacob chased after the birthright, labored fourteen years for Rachel, and accumulated vast wealth, believing these would bring happiness. Yet, they only yielded broken relationships, strife, fear, and emptiness. Worldly pursuits can never satisfy.

When Jacob was left alone in despair by the Jabbok stream, God wrestled with him. Even when his hip was dislocated and he collapsed, Jacob clung desperately to God, crying,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Realizing that God alone is everything, he was transformed from Jacob ("deceiver") into Israel ("one who wrestles with God"). Like a child tearfully clinging to a father, we must hold on to our Father God. A true believer is one who feels utterly ruined if God is absent, continually confessing that Christ alone is our life and our way.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림과 목마름'은 죽음을 목전에 둔 절박한 갈망입니다. 최근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The "hunger and thirst" Jesus spoke of refers to a desperate, life-or-death longing. Honestly share what you have been hungering for and pursuing most deeply in your life recently.

2.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True faith involves constantly asking, "What would Jesus do?" in our daily lives. Share an experience from this past week where you sought the Lord's will through His Word and prayer with this question in mind.

3. "내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 한 분을 뺄다면 어떠할까?"라는 질문 앞에 나의 신앙을 진단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사람이나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How would you answer the question: "What if God alone were removed from everything in your life?" What practical step can our family take to stop wrestling with worldly things and instead cling to Father God as "Israel"?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God. As we have shared through Your Word, help us not to chase after the vain things of this world, but to live as 'Israel', clinging desperately only to our Father God. In every moment, may we ask "What would Jesus do?", walk in obedience, and spend this week fully satisfied in You al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